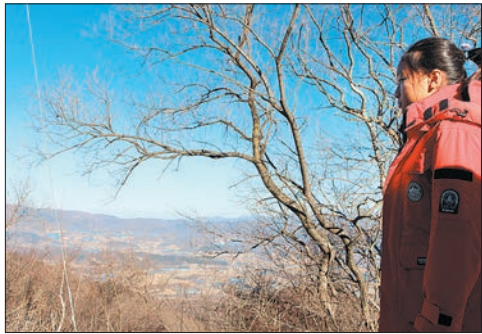


11세 소녀도 “남북이 친해졌으면”

민추본 ‘한반도 평화기원’
민통선 순례 동참해 서원
“남북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통일되죠...”



지난 9일 민추본이 마련한 평화기원 민통선 순례에 참가해 6·25전쟁 당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편치불을 바라보고 있는 박가혜 양.

기 방송을 재개한 다음날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는 강원도 춘천 청평사, 양구 편치불과 평화의담 등 민간인출입 통제선을 비롯해 남북접경지역을 둘러보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기원했다. 불과 이를 전까지만 해도 순례 장소로 예정되었던 을지전망대는 군의 출입 통제로 방문하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순례에 앞서 가장 먼저 춘천 청평사를 찾았다. 극락보전에서 부처님전

에 삼배의 예를 올린 참가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을 기원하며 발원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같은 핏줄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굽어 살펴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 겨레에게 지혜를 심어달라”며 “(분단)반세기 동안 정체돼 있던 우리 민족의 드높은 기상이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6·25전쟁 당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편치불(분지 지형이 ‘화체 그릇’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평화의담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일일 선생님이 안내자로 나선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새해 들어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해 8·25합의 이후 불교계가 나서 민간 교류를 이끌었던 것처럼 2016년에도 불교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구=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60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서로 화합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세계를 열기 위해 한국불교 구성원 모두 한 물줄기로 나아갈 것을 기원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단협의회 대표가 스님 등이 합동 배례를 하며 신년 발원을 다짐하는 장면.

▶관련기사 2면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불교신문 임직원
1409만원 ‘보시’

‘총본산 성역화불사’ 힘 보태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을 비롯한 본지 임직원들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으로 총 1409만원을 쾌척했다. 불교신문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성역화불사 기금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장 스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성이 담긴 소중한 기금으로 성역화불사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 사장 주경스님은 “신문사 기자들

을 비롯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기금을 모으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종단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사서실장 심경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김하영 편집국장, 홍승도 업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조계사를 중심으로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 인사동을 연계한 새로운 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종단은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주체

로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불사가 원만히 화형되면, 건지동 45번지 일대 토지면적 2만 8577㎡ 규모에 10·27역사교육관과 치유시설 등 법단기념관이 설립되고, 템플스테이체험관 등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불사에 동참하려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02-730-6690)로 문의하면 된다.

1통화에 5000원인 ARS 후원전화(060-700-1027)나 모연계좌(농협 301-0160-9713-71, 국민은행 023501-04-221144) 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교단 발전·건강한 사회변화 ‘도반’

본지 2016년 신규 논설위원 12명 위촉

불기 2560년을 맞아 불교신문은 사회 분야에서 활약 중인 12명의 스님과 불자를 논설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불교신문은 신규 논설위원들과 함께 교단 발전과 건강한 사회변화, 그리고 수행정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관·월호·정운(보령 세원사 주지)·정운(동국대 강사)스님과 이진두·김숙현·홍사성·김응철·최택환·배재호·윤성식·이정우·유자호 위원은 올해도 논설위원을 계속 맡습니다. 신규 논설위원의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전스님은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총무원 총무국장, 미국 LA 금강선원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고불총림 백암사 주지 직무대행과 원로회의 사무처장 소임을 맡고 있다. △묘장스님은 서울 연화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구미 도리사 주지, 국제구호개발재단인 더프라이드 상임이사이다. △연광스님은 2014년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스님에게 전등율맥을 받았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승가대학 강사, 송광사 총무를 역임하고, 현재 광주 증심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광주불교연합회장이다. △진광스님은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사서국장과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연수국장 등을 역임한데 이어 교육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 △자현스님은 성균관대와 동국대, 고려대 등지에서 4개의 박사학위를 비롯하는 등 총7개의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승이다.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 월정사 교무국장, 월정사 부산포교원장 소임도 맡고 있다. △만우스님은 199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서 시(詩)로 등단한 후 2005년 입산 출가해 현재 서울 관문사에서 주석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역경학과와 쌍계총림 쌍계사 율원에서 수학했다. 저서로는 시집 <길 위에서 묻는 길>, 희곡집 <과거를 묻지 마세요> 등이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본지를 통해 ‘문인에세이’ 코너를 연재했다. △진명스님은 중국 베이징 만월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비구니회 사서실장과 시흥 법련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불교방송 ‘차 한 잔의 선율’을 8년간 진행한데 이어 불교TV ‘지대방’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하복동 동국대 석좌교수는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 차석출신으로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5, 6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이상원 한성대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교수는 애니메이션 전문가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콘텐츠 전문가다.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회장에 이어 명예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도시문화학회 회장 소임도 맡고 있다. ‘아생여담’ 등 불교 관련 애니메이션을 다수 제작했다. △순수일 법무법인 로콜 대표변호사는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과 대구, 인천 등지의 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1999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했다. 현재 조계종 법률자문단 위원, 불교포럼 감사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연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북한전문가다. 동국대 북한학과장과 대학원 교학부장, 민화협 정책위원회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도 본지 논설위원을 맡은 바 있다. △김정민 동화작가는 2014년 불교신문 신춘문에 동화부문에서 ‘노란 양말’작품을 통해 당선됐다. 2014년 제6회 천강문학상에서 ‘내 의자’라는 작품으로 아동문학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매달 한차례씩 불교신문 ‘여시아문’ 코너에 연재했다.



신도교무금 납부는 조계종 신도의 의무이며 한국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연1회 10,000원 재적사찰에 납부합니다.

Q 신도등록이란?

신도등록은 신도품계의 첫 번째 단계(발심)로 재적사찰에서의 정기적 수행활동과 올바른 불교교육을 통해 참된 불자가 되는 신도의 첫걸음입니다.

Q 신도교무금은 어떻게 사용 되나요?

신도님들께서 납부하신 신도교무금은 사찰(신도교육, 신도관리, 포교활동, 신도회 등)과 종단(신도포교사업, 신도교육사업, 복지사업)의 운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Q 신도교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나요?

신도등록(발심품계)한 신도님은 매년 1회 재적사찰을 통해서, 신도교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신도증은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신도교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신도증을 발급 받은 날과 관계없이 매년 1회(상반기)에 신도교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도증은 갱신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합니다. 신도증 분실, 재적사찰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때, 사찰에서 신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Q 신도등록과 신도교무금 납부를 포교원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나요?

조계종 신도등록 사업은 재적사찰 갖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도님은 근본도량을 정해 신도등록을 하고, 지속적인 수행 활동과 신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적사찰에서 신도등록 신청과 신도교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촬영에 협조해 주신 조계사 신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문의 : 02.2011~1904, 1996